

■Track 1

(【음원】 정면 【30cm】)

응...? 저건...?

(▲SE: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

(【음원】 정면 10cm로 이동)

후후... 드디어 싹이 트기 시작했네...

(【음원】 다음 대사를 말하면서 천천히 좌우로 이동)

(●땅에서 자라나는 남성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이미지)

헤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직 고추랑 불알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란 것 같네?

뭐어... 물 주는 거 좀 빼먹은 시기도 있었지만...

내가 키우는 거니까, 좀 더 열심히 자라줘야지?

(【음원】 좌우 이동 종료)

하아... 그런데... 색욕물 키우는 거, 정말 오래 걸리는 놀이구나.

씨를 뿌리고 나서, 고추랑 불알이 자라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이야...

...뭐, 심심한 귀족 부인들한테는

딱 좋은 취미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좀 더 빨리 자라면 안 돼?

에ㄷㄷ한 거 할 수 있을까 봐, 기대했던 말이야...

음— 그 불량 서큐버스가 뭐라고 했더라...?

아, 맞다 맞다.

사랑을 쏟아줄수록 색욕물은 빨리 자란다... 뭐 그런 말.

난 '사랑'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말이지...

뭐어, 됐어.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10cm로 이동)

나만의 방식으로, 예뻐해 줄게... ♪

여기까지 자랐다는 건... 이젠 들리고 있는 거지?

좋아? 내가 키워주는 이상,
제대로 된 섹욕물이 되어야 해?
...아니면,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각오해둬?

.....어라?
잠깐, 왜 쪼그라드는 거야?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귀 옆으로 이동)
섹욕물이면... 발기하는 게 일이잖아?
이래선... 얘기랑 완전 다르잖아.
정말... 한심하네, 너란 녀석.

(●소근소근 시작)
후훗, 들었어? 너 정체... ♪

너... 동정인 채로 죽었잖아?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고로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못한 채...
이렇게 비참한 섹욕물이 되다니... 정말, 불쌍하다니까?

그래도 다행히...
죽기 전 기억은 남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인생, 똑바로 노력해보시지?

(●다음 대사, 속삭이듯)
만약... 네가 더 크게 성장한다면...
이 에로피엘 님이... 제대로 보상해줄 수도 있어... ♪

음— 그렇지...
몸이 다 완성될 정도로 자라면...
섹스 같은 것도... 시켜줄지도 모르지?

천계에서도 손꼽히는 미모를 자랑하는 나랑
에ｯㅈ할 수 있다니...

영광으로 알아둬? 각오 단단히 하라구?

(●소근소근 여기까지)

(【음원】 말하면서 정면 10cm로 이동)

…후후후.

조금은, 의욕 생긴 거야?

…하지만, 아직 더 커져야겠지?

(【음원】 말하면서 왼쪽 귀 옆으로 이동)

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게… 손으로 자극해주면 좋았던 거였지?

툭… 툭툭…

……뭐야, 전혀 반응 없잖아. 불량품이야?

안 자라면, 아프게 해줄 거야? 짹… 꺾… 후훗 ♪

어때…? 아프지?

성장에 자극이 필요하다면,

아픔도 괜찮은 거겠지?

(▲SE: 짹 쥐고 문지르는 소리, 루프)

(●소근소근 시작)

봐봐, 빨리 크지 않으면… 못 써먹게 되겠는걸?

그게 싫다면, 말을 잘 들어.

다른 색욕물들은, 훨씬 멋진 고추였거든?

근데 이 초라한 자지는 뭐냐고?

이렇게 문지르는 걸, ‘핸드잡’이라 하던가?

이 에로피엘 님이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응, 응응… 어서 커지라구.

이게 한계는 아니겠지? 반품해버릴 거니까, 이…!

쓱쓱… 쓱쓱쓱.

으훗…♪ 단단해지긴 했네…?

역시 나란 존재.

그대로… 응, 응…

고추, 단단하게 세우는 거야…

동정의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색욕물이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응, 응응… 쓱쓱… 쓱, 쓱… 쓱쓱쓱♪

(●소근소근 여기까지)

(▲SE: 손으로 문지르는 소리, 일시 정지)

(●다음 대사, 속삭이듯)

응… 헤에? 하면 되잖아♪

완전히 발기하니까, 기특하네~♪

이것도 다, 내가 키운 방식이 훌륭해서 그런 거야… 감사해♪

그건 그렇고… 이거, 생각보다 크네…

…응. 뭐어 뭐어, 전 동정 치고는 모양도 나쁘지 않은 듯?

잘만 키우면, 상급 천사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을까나?

응, 아아… 잠깐, 뭐야? 움찔움찔 하잖아?

색욕물 주제에… 응석이라도 부리는 거야?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귀 옆으로 이동)

……. 뭐, 재밌어졌으니까…

그렇게 원한다면, 좀 더 놀아줄게♪

(▲SE: 핸드잡 소리, 루프)

(●소근소근 시작)

응, 응응... 봐봐... 쓱쓱, 쓱쓱...

이게 원했던 거잖아?

쓱쓱... 쓱쓱... 쓱쓱쓱... ♪

응... 우와, 너무 기뻐하네. 뭐야 이 끈적끈적한 거...
손에 묻어도 괜찮은 건가? 나중에 조사해봐야겠는걸...

...응, 하아. 근데 반응 엄청나네...

처음 치곤 꽤 괜찮은데? ...뭐야, 핸드잡 별거 아니잖아.

팍... 이렇게 쥐고, 적당히 문지르면 되는 거라니...

후후, 감사하게 생각하랴구?

동정이라서... 여자애한테 쓱쓱해달린 것도
이게 처음이잖아?

색욕물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자 손의 부드러움도 모른 채,
단 생물로 환생했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길러줘서 다행이네?

(●다음 대사, 속삭이듯)

자, 자~ 쓱쓱... 쓱쓱쓱 ♪

이게 바로... 천사의 핸드잡이야
좀 더 기뻐하는 표정 지어보시지?

쓱쓱~ 쓱쓱쓱 ♪

...응, 응응... 고추가... 이렇게 떨리는 거야?

.....아, 이거... 그렇구나, 사정이라는 거네?

후후, 본 적은 있어. 친구 천사가 고추 문질렀더니,
끝에서 뿌우우우우~ 하고 나왔거든.

그거, 너도 할 수 있는 거잖아?

하얗고 끈적한 즙을 확 씹으려서…… 후후, 나도 해보고 싶었거든.

그거… ‘정자’였지? ‘정액’이라고도 하고…

그 천사는 한 번 싸고 축 늘어져버려서 못 했지만…

딱 좋아. 너로 실험해볼게.

자, 어서 싸봐. 사정이라는 거… 나도 해보고 싶단 말이야!

……말해두지만, 시시하면 용서 안 해. 이… 응, 응…!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할 셈이야? 빨리 싸, 싸라구…!

응, 응, 좀 더 세게 문지르면 되려나? 쓱쓱보단… 막… 뽀뽀하게…!

밑동부터 꼭 짜내는 느낌으로…! 응, 응, 응…! 하아, 아아… 힘들어라…

사정해! 지금 안 싸면, 뽑아버릴 거야… 자아~아…!!

(●사정)

까앗, 응응응… 응아… ~~~앗!!

(【음원】 말하면서 정면 10cm로 이동)

아으으으~ 뭐야 이거…!?

전에 봤던 거랑 완전 다르잖아… 이렇게까지 나와…!?

으으… 옷에까지 튀었잖아. 얼룩지면 어쩔 거야…

아아… 내 고귀한 손이…… 으으, 기분 나빠…

쿵, 쿵… 응, 아… 으윽, 냄새…

역시 색욕물답게, 냄새도 최악이네…

쿵쿵… 그런데도…

쿵, 쿵… 어째서일까…

이상하게… 응, 응…

중독될 것 같은 냄새야…

……근데, 맛은 어떨까?

(【음원】 말하면서 정면 코앞으로 이동)
색욕물 정액은 맛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응… 츄… 렐루… 응응?
렐루, 렐츄… 흐으응?

너 정액… 꽤 맛있는걸? ♪

…좋아, 결정했어.
너의 즙… 더 마시게 해줘?

…거절권 따윈, 없어 ♪

(●정액 청소 페라 시작)
응아아아아앗… ♪

(★정액 청소 페라, 약 10초)

…응, 응응… 뭔가 이상한 맛이…
아, 이거 흑시… 고추때 낀 거?
꽤 방치해야 끼는 거잖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고추 때가 잔뜩 낀 거야…

뭐어, 치즈 같아서 싫진 않지만… ♪

(★정액 청소 페라, 약 10초)

아아… 역시 이 정액, 진짜 맛있네…
지금까지 여러 꽃의 꿀을 맛봤지만…
이렇게 꾸덕하고 농후한 맛은 처음이야…

응응… 아직도 끝에서 흘러나오고 있잖아.
아깝잖아, 이것도 마셔버릴게?

(★정액 청소 페라, 약 10초)

응... 렐루, 응쥬루... 쉼포오 ♪
후우... 이제 고추 깨끗해졌네?

게다가, 아직도 단단하잖아...
입으로 하는 거, 페라...였지?
나, 에ㄷ치한 재능 있는 거 같지 않아?
너무 좋았지?

.....으훗 ♪ 그렇게 티 나게 반응해선... ♪
뭐, 나쁘진 않지만 말야?

그렇게 좋았다면...
조금 더 해줘도... 좋을지도? ♪

응아아아앗...

(★귀두 중심 페라, 약 20초)

...으훗 ♪
벌써부터 단단해진 고추가 파르르 떨리고 있어.
너무 느끼는 거 아냐...? 렐루, 레로오...

뭐, 그래도... 렐루, 응응...
동정이라면, 이 정도 반응은 당연하긴 하지.
렐루, 응응... 렐루, 렐레로오...

내 혀, 사람보다 긴 편이거든~
렐루... 고추에 찌득하게 감겨서...
렐루... 렐쥬... 렐루, 레로오...
기분 좋은 부분, 콧물 찢러줄 수 있지? ♪

응쥬웁, 즈보웁, 쉼루우우, 렐렐루우...

.....응? 파르르 떠는 거 보니까, 귀두가 좋은 거야?
그럼, 여기를... 제대로 핥아줄게?

(★귀두 중심 페라, 약 20초)

.....으훗 ♪

응아, 렐루... 레로오...

또 흘리고 있네?

기분 좋은 건 알겠지만... 렐루, 렐루...

이번엔... 참아야지?

안 그러면, 재미없잖아?

그래도... 렐루웃, 츄파아...

정액이랑은 다르게, 렐루, 렐레로오...

이건 좀 더 담백하긴 해도... 응아, 렐루...

뭐, 이걸 이거대로... 맛있네?

아마... 묽은 정액 같은 거겠지?

(★귀두 중심 페라, 약 20초)

...렐루, 레로오... 츄파아...

응, 응응... 묽은 정액도 그럭저럭 맛있지만...

렐루, 렐루... 역시 진한 걸 더 맛보고 싶네...

있지... 이제 곧 사정할 수 있겠지?

응아, 렐루...

.....으훗, 좋은 대답이야♪

그럼...

이번엔 내 입 깊숙한 곳까지 써서,

열심히 페라 해줄게...

맛있는 정자, 잔뜩 쏟아내는 거야...?

(●여기부터, 고추를 문 채로 연기 부탁드립니다)

응아아아아앗...

(★목 깊숙이까지 물고 빨기, 약 20초)

응쥬루웃, 쥬뽀, 렐루... 응, 응응...

어때? 기분 좋지...? 렐루웃, 응쥬루우...

입 전체로... 고추를, 혀랑 같이 감싸고...

마치 보지 안에 넣은 것 같은 감각... 아닐까?

...아, 맞다. 동정이니까 보지가 뭔지도 모르겠네.

하아... 섹스도 모른 채 죽다니...

너무 불쌍해서... 눈물 나올 것 같아.

불쌍하니까, 빨아줘서 위로해줄게.

...자, 내 입보지... 더 맛봐봐?

(★목 깊숙이까지 물고 빠는 페라, 약 10초)

.....후후, 내 페라... 그렇게 좋은 거야?

말 못 해도, 네 반응 보면 다 알 수 있거든.

응쥬루... 쥬루우...

입 안에서 기뻐서 고추가 깡깡 뛰고 있잖아...

그렇게 좋으면... 더 해줄게 ♪

(★목 깊숙이까지 물고 빠는 페라, 약 20초)

응... 응쥬루... 응아... 응응...

이번엔 꽤 잘 버티네...

하지만... 한계, 다가오고 있는 거지?

.....좋아? 이제, 싸도 돼 ♪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페라로 올라온 정자, 내 입에 뿌우우~ 하고

마음껏 씹버려 ♪

(★목 깊숙이 문 채로, 쥬보쥬보 빠는 페라, 약 20초)

자, 자아... 기분 좋아서 멈출 수 없지?

쥬루... 응쥬루... 언제든지 싸도 되니까...

(★사정을 유도하며 쥬보쥬보 빠는 페라, 약 20초)

(●사정)

응, 응... 응응... 응응 ♪

뿌웃... 뷰, 뷰, 뷰우우우우우우... ♪

응... 응응... 응긋, 꿀꺽, 꿀꺽...

(【음원】 말하면서 정면 10cm로 이동)

응... 푸하아♪

...응응♪ 역시, 이 정액... 맛있어...♪

혀에 착 감기는 크림함...

엄청 진한 맛...♪

이러니... 귀부인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알겠는걸.

...뭐야,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어.

아직 두 번밖에 안 싹잖아?

넌, 이 나의 핏이야. 그걸 명심하라구?

.....하아, 벌써 시들시들해지다니...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섹스가 가능할까.

하아... 진짜, 쓸모없네. 한심한 녀석.

...왜? 분한 거야?

그럼, 더 자라봐.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면서.

공짜로 돌봐주고 있는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입 모양도 못 만들 정도로 한심하니, 그건 무리려나. 후후.

또 얼마 후에様子 보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잘 자라 있길 바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너랑은 다르게, 난 바쁘거든.

괜히 귀찮게 하지 말라고?

(▲SE: 멀어지는 발소리, 페이드아웃)

■Track 2

(▲SE: 문 여닫는 소리)

(▲SE: 다가오는 발소리)

(【음원】 정면 10cm)

……어, 뭐야 이거…

잠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너, 갑자기 너무 자란 거 아니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추랑 불알밖에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얼굴까지 튀어나오다니… 듣지도 못했거든.

이렇게 커질 거면, 미리 말해줬어야지?

……뭐? 감히 말대꾸야?

거기서 못 움직인다 해도, 그 정도는 어떻게든 해보라구.

(【음원】 말하면서 왼쪽 사선 10cm로 이동)

하아아… 아아, 진짜. 흠이 사방으로 튀었잖아.

이거, 어쩔 거야?

청소 안 하면, 어머님한테 들켜서 혼나버린다고?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사선 10cm로 이동)

……사과한다고 흠이 치워지진 않거든?

하아아… 고추만 나왔을 때부터 생각했지만,

역시 너… 굶뜨고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평생 동정이었던 거잖아.

그나마 괜찮은 점이라면… 정액 맛 정도였는데…

그것도 금방 마르면 의미 없지, 장점이라고도 못 해.

(【음원】 말하면서 정면 10cm로 이동)

……응? 그래?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좀 말대꾸하네?

자랐다고 해봤자, 머리 하나 생긴 수준이잖아?

그걸로 발기력이 좋아진 것 같진 않은데?

……후후, 맞아. 나도 공부했거든.

커지는 걸 '발기'라고 하잖아?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줘보라구?

(【음원】 말하면서 왼쪽 꺾가로 이동)

방 더럽힌 벌이라도 줄까 했던 참이었는데…

딱 좋네.

……흥. 너는 내 소유물이니까,
훈육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다음 대사, 속삭임)

먼저 뭘 해볼까나… 후후, 좋은 거 떠올랐어 ♪
귀가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부터 괴롭혀볼까? ♪

(●귀 핥기 시작)

응아아아…

(★귓구멍을 파듯이 핥는 소리, 약 20초)

어때? 귀, 안쪽까지 핥아주는 거… 기분 좋지?
렐루, 렐루우… 레로오… ♪
혀가 긴 게, 이런 데서도 쓸모 있더라구… ♪
렐루우… 응아, 렐루, 레로오… 후후, 생긴 지 얼마 안 된 귀니까… 민감하네?
레로오, 응렐루, 레로레로오…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 레로레로오… 하아.
그렇게 기분 좋으면… 실컷 맛보게 해줄게.

(★귓구멍을 파듯이 핥는 소리, 약 20초)

(●작은 목소리 시작)

…응후. 벌써 귀가 새빨강네.
내 혀… 그렇게 기분 좋은 거야?
이런 걸로 느껴버리다니, 여전히 한심하네.
렐루우, 응아… 렐루, 렐루레로오… 렐루, 렐루츄우…
응… 후후. 어머니, 아직 만지지도 않았는데…
고추가 단단하게 발기해 있잖아.
게다가 기쁘다는 듯이 파르르 떨고 있고…

(●다음 대사, 속삭임)

있지, 여기도 만져줬으면 좋겠지…?
……뭘, 그렇겠지.
발기한 고추를 만져주는 건 괜찮지만…
저번처럼 허락 없이 싸버리면 용서 안 할 거야?

렐루, 렐루우… 자, 어때? 약속… 할 수 있어?

응레로오, 렐루우, 렐루렐루렐루우... 하아.
.....응, 약속했으면 됐어.
네 더러운 발기 자지... 만져줄게.

(▲SE: 손으로 문지르는 소리, 루프)

응... 자, 쓱쓱... 쓱쓱쓱.
렐루, 렐루... 렐루, 렐루츄우... 쓱쓱, 쓱쓱쓱.
응아... 렐루우, 렐루우... 렐루레로오...
...진짜. 하나하나 소리 내지 마.
느끼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귓구멍을 파듯이 훑는 소리, 약 10초)

.....후후, 안 돼. 멈춰줄 생각 없어 ♪
네가 괴로워하는 얼굴 보려고 하는 건데?
귀 훑는 걸 멈출 리가 없잖아?

응렐루우, 찼... 응레로오, 렐루우... 렐루렐루우, 렐루로오... 아아.
...응후, 후후후 ♪
지금 네 얼굴... 최고야.
비참하고,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워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뺨 뚫리는 기분이야.
그 얼굴... 더 많이 보여줘... 내게 ♪

(★귀 깊숙이까지, 끈적한 귀 핥기, 약 20초)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응~?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말해보시지?

(▲SE: 손으로 문지르는 소리, 일시 정지)

.....그래? 싸버릴 것 같다고? 그럼...

꽉... 응후. 이렇게 해버리면...
고추를 꽉 잡아주면...
싸고 싶어도 못 싸겠지?

……후후, 역시♪

불량 서큐버스 얘기도, 쓸모 있는 게 있긴 하네♪

……응~? 혹시… 싸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아쉽지만, 그건 착각이었네?♪

(●다음 대사, 속삭임)

이렇게 재밌는 걸, 쉽게 끝내버리면 아깝잖아?

…너에 대한 벌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이니까, 각오하라구?

(【음원】 말하면서 정면 코앞으로 이동)

봐봐, 사정감 좀 가라앉았으면… 계속해줄게?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귓가로 이동)

그럼 이번엔 말이지…

같은 데만 핏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 대사, 속삭임)

이쪽 귀도… 핏아줄게?

(▲SE: 손으로 문지르는 소리, 루프)

(★귓구멍을 파듯이 핏는 소리, 약 20초)

(●작은 목소리 시작)

……응후. 왜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어?

혹시, 반대쪽 귀만 계속 핏아줬더니…

여기가 더 민감해져버린 거야?

렐루, 레로오… 응후후♪

또 징그러운 소리 내고… 너무 느끼는 거 아냐?

응, 응응… 여자애처럼, 앙양 하고…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신음소리를 낼 수 있지?

진짜 한심하네… 렐루, 렐루츄우…♪

그렇게 기분 좋다면, 얼마든지 핏아줄게…?

안쪽 깊숙이까지, 혀끝으로 꾸욱꾸욱 눌러서…♪

(★귓구멍을 파듯이 핏는 소리, 약 20초)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렐루, 렐루우.

고개 돌리려 해도 소용없어?

아직 몸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잖아… 렐루, 렐루츄…

도망칠 수 있을 리 없지?

괜한 저항 말고… 암전히 벌 받아.

응레로오, 렐루렐루렐루우, 응렐루우……

뭐, 보상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후후.

(★귀 깊숙이까지, 끈적하게 핏기, 약 20초)

(●작은 목소리 시작)

봐봐, 여기가 기분 좋은 거잖아…?

귓속 깊은 데 좋아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내 혀, 귀 속 깊은 곳에서 실컷 느껴봐…?

(★귀 깊숙이까지, 끈적하게 핏기, 약 20초)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하아, 시끄럽네.

기분 좋은 건 알겠으니까, 그렇게 떠들지 마.

그렇게 싸고 싶으면, 나한테 애원이라도 해보지 그래?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 시작)

에로피엘 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에로피엘 님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더럽게 싸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불쌍한 색욕물을…

사정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싸게 해줄게.

자, 말해보라구. 싸고 싶잖아?

자, 자아... ♪ 응레로오, 렐루우, 렐루렐루렐루우, 응레로오, 렐루렐루우...

안 하면, 계속... 레로레로오, 귓속을 짹짹 범해줄 테니까...

레로레로오, 하아...

렐루우, 응레로오, 렐루렐루우, 렐루레로레류우우.....

응후 ♪ 잘 했네에.

보상으로, 이 성욕뿐인 노예 자지... 싸게 해줄게 ♪

(▲SE: 쥐어짜듯 격해지는 손으로 문지르는 소리)

(★귀 깊숙이까지 끈적한 핥기, 약 20초)

자, 자, 자아... 기분 좋지?

싸고 싶다면... 그냥 싸버리라구.

렐루, 렐루... 렐루레로오...

자, 자아... 렐루, 렐루우, 응아, 렐루우...

싸, 싸... 렐루, 렐루레로오... 싸, 싸버려... ♪

쌓인 정액... 뿌윽뿌윽~ 더럽게 싸버리라구 ♪

(★쥐어짜듯 귀 깊숙이까지 끈적하게 핥기, 약 10초)

응... 하나, 둘, 셋... 뿌윽, 뷰룻, 뷰우우우우우우... ♪

.....하아, 하아... 응응. 수고했어.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음원】 말하면서 정면 10cm로 이동)

후후. 진짜 많이 쌓여 있었나 봐?

이리 봐봐. 네 정액 때문에...

내 손이 완전 끈적끈적하잖아 ♪

응츄... 렐루, 레로오... ♪ 아아, 맛있다.

정액 맛만큼은 진짜 일류야, 너.

근데, 좀 너무 쏘는 거 아니야?
봐봐... 내 머리카락까지 더러워졌잖아.

(【음원】 말하면서 왼쪽 콧가로 이동)
정말이지... 주인의 머리카락을 더럽히다니, 못된 색욕물이네?

이건... 아직도 벌이 더 필요할까봐?

.....아하, 당연히 아직도 끝난 거 아니지?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생각해?

이번엔, 진짜로 기분 좋은 거 해줄 거야.

그리고 너, 아까 맹세했잖아?
날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싸줄 수 있다고.

그런데... 왜 멋대로 쪼그라들고 있는 건데?

.....뭐라고?
쏟 직후라서 그렇다고?

내가 하라고 하면 바로 다시 세워야지.

그게 안 되면...

(▲SE: 무언가 꺼내는 소리)

이거, 쓸게?

.....응? 이건 말이야... 금단의 과즙이야.
아무리 피곤해도, 성욕을 확 되살려주는 약이지.

귀한 물건이라던데... 한심한 너 때문에 써주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라구?

(▲SE: 금단의 과즙을 주인공에게 끼얹는 소리)

.....응후후 ♪ 바로 효과가 나오네?

살짝 뿌렸을 뿐인데... 고추가 다시 살아났잖아?

이 정도면,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

그럼, 슬슬 준비 좀 할까?

(▲SE: 옷 스치는 소리)

(【음원】 말하면서 커널링구스 위치로 이동)

응, 슷…

자, 활아.

……응? 너, 이런 것도 몰라?

기분 좋은 거 하려면, 보지를 젓게 만들어야 하잖아?

처음인 나도 알고 있는데… 진짜 너란 녀석은…

……봐, 보이잖아?

됐으니까, 어서 활아.

응, 아아… 거기, 거기야. 좋아.

응응… 동정 주제에, 나쁘지 않은 허놀림이잖아?

아, 아아, 응… 구석구석까지 활으라니까?

섹스 전에 보지를 잘 풀어줘야 한다고 들었거든…

안 그러면 아프다더라…

아, 아앗… 앙, 응응… 아아…

잠깐, 주변만 활지 말고… 응, 아아…

허를 넣어서, 안쪽도 활아.

아마 그쪽이 더 잘 풀릴 것 같고…

봐봐, 보지 밀어줄 테니까… 아아, 응…

이러면 할 수 있겠지?

(★숨 섞인 신음소리, 약 10초)

좋아, 그런 느낌이야… 허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앓, 응응…

꽤 기분 좋아… 아아앗, 응…

……응, 아아… 너, 나보다 더 아무것도 모르네?
거긴 ‘클리토리스’라고 해… 아아, 응…
기분 좋아지면, 고추처럼 단단해지는 거야…
아아앗, 응…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클리도 민감한 곳이니까, 거기도 활으라구…

……응앗, 응콧, 응, 아아… ♪
응, 그거 좋다… 아, 응, 아아… ♪
혀로, 클리트를… 쓱쓱 문지르니까… 기분 좋아… ♪
응… 하아, 하아… 앙, 응, 아아… ♪
하아, 하아… 아, 거기… 응, 응응…
잠깐… 잠깐만 좀… 기다려…… !

…있지, 너 좀 들렸지 않아?
조금 나한테 느끼게 해줬다고 해서…
기분에 취하지 마라구?

하아… 이제 활는 건 그쯤 하면 됐어.

(【음원】 말하면서 기승위 위치로 이동)
보지는 충분히 젖었고… 섹스, 시작할 거야.

봐봐, 보이지?
네가 젖게 만든 내 보지가… 고추 위에 있어.
이제부터 너는, 나랑 섹스하는 거야.
어때? 기쁘지? 동정 졸업할 기회라구?

……후후, 울 정도로 기쁜 거네 ♪
그럼 자… 네 고추, 넣어버릴게 ♪

(●기승위 섹스 시작)

(▲SE: 삽입음)

응… 응아… 아아… 응, 응응…

후후, 들어갔네…♪
동정 졸업, 축하해~
어때? 처음으로 보지에 넣은 소감은…?

……그래?
너답지 않게, 꽤 괜찮은 말 하잖아…♪
뭐, 그 얼굴만 봐도 알겠는걸…
안은 미끌미끌하고, 꾸욱꾸욱 조여오고… 기분 좋다니,
웬지 알 것 같기도 해…♪

응… 뭐, 나도 나름대로 기분은 좋아…?
근데… 허리를 움직이면 말이지… 더 기분 좋을지도?
후후, 기대되네…?

(▲SE: 삼입 · 추피 루프)

(★숨 섞인 신음소리, 약 20초)

응… 아아…
이거, 좋을지도… 기분 좋아…♪

……응후♪ 너도 그런 거야…?

……아하, 역시나♪
네가 느끼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 내 보지, 어떤 느낌으로 기분 좋은지…
말해봐… 자, 어서.

(★숨 섞인 신음소리, 약 10초)

응… 아아…♪ 후후후, 그래…?

다행이네, 따뜻하고 최고로 기분 좋은 보지로
동정 졸업할 수 있어서♪

응, 응… 아아아…

색욕물로 다시 태어난 걸… 신한테 감사하라구?
하아… 하아… 아아, 응…

안 그랬으면 넌, 이 기분도 못 느끼고…
벌레 따위로 환생했을지도 모르잖아?
응앗… 아아앗… 앙, 응응…

……뭐야? 너, 건방지네?
색욕물 주제에… 나한테 고추 감상평을 묻는다니…
아아앗… 응아… 아아…

뭐, 그래…
나도 처음이니까 비교는 못 하겠지만…
응… 앓… 아아… 응…

단단하긴 단단하고… 앙, 앓…
곡선도… 꽤 잘 맞고… 아아, 응…
꽤… 기분 좋아… 하아, 하아… 응응…

……야, 들뜨지 마.
응앗… 앙, 응… 아앗…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아, 응…
너는 멋대로 고추를 세우거나 하지 말라고…!
아앗… 응… 응아… 아아앗… 하아, 하아…

좋아? 지금 확실히 말해둘게…
너는, 내 성처리 도구야…!

현세식으로 말하면… 그럴네… 앙, 응응…
너는, 내 생딜도라는 거야… 아아, 앙…
그러니까 멋대로 하지 말고… 하아, 하아…
내 말대로 발기만 하고 있으면 돼…!
앙, 응, 아아… 알겠으면, 대답할 수 있겠지?

하아, 하아… 응앗, 아아…
……응후. 알아들으면 됐어 ♪

그럼 이대로, 계속 단단히 세워두는 거야… 알았지?
앙, 응응… 하아, 하아…

좀 부족해진 느낌이네... 응, 아아...
격하게 움직일 거니까... 앙, 아아... 사정, 참아야 해...?

(▲SE: 격한 삼입 소리 루프)
(★느껴가는 신음소리, 약 20초)

이 정도로 격한 게 더 좋은지도 몰라... 앙, 응.
보지 깊숙이까지, 꺾꺾 찢러올라오는 그 느낌이...
응, 아앗... 너무, 기분 좋아... ♪
하아, 하아... 응앗, 앙, 앓, 아아...

(★기분 좋은 듯한 신음소리, 약 10초)

.....뭐, 뭐야. 시끄럽네...
이 정도로 전혀 만족 못 하거든?
사정 같은 건, 허락 못 해... 알겠어?
응... 앙, 응, 아아...

음... 이럴 땐 좋은 방법이 있었지... 아, 맞다 ♪

봐, 파아아악~ 보지를 조여줄 테니까...

이러면, 싸고 싶어도 못 싸겠지?
앙, 아앗, 응... 응후, 괴롭지?

애초에 지난번 네가 힘 빠져버리는 바람에... 앓, 응...
못 했던 거잖아... 아앗, 응, 응응...

참았던 만큼, 여기서 다 풀어버릴 거야...
앗, 응, 아앗... 하아, 하아... 응응...

너는 암전하... 자지 세워두고 있어야지...!

(★기분 좋은 듯한 신음소리, 약 20초)

응... 히야앗, 앙... 앓, 아아앗... 최고야 ♪
보지 깊~은 데까지... 앓, 아앗...
고추로 툭툭 두드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
응... 하아, 하아... 좋아, 정말 좋아 ♪

응긱, 앙, 응... 아아...

너, 그대로... 조금만 더 참아줘야 돼...?
조금만 더면 뭔가 올 것 같으니까... 응앗, 앓, 아아앗...
내가 갈 때랑... 동시에 싸는 거야... 응, 아아...
봐봐, 조금만 더 힘내라구?

(★기분 좋은 듯한 신음소리, 약 20초)

자, 자지... 자지 기분 좋아... ♪
응, 앓, 앙... 앓, 아아앗... ♪
아, 안 돼... 이제, 갈 것 같아... 하아, 하아...
앙, 앓... 앓아아앗... 가, 갈게, 간다간다...!

.....응, 아아... 좋아?
너도 나랑 같이 가라구... 히야앗, 응, 아아...
이대로... 에로피엘 님의 보지 안에... 앓, 응응...
뿌우~ 뿌우~ 생으로 질내사정 해버리는 거야... ♪
자, 자아... 응긱, 응, 아아... 가, 가자...!
아, 아아앗... 갈게갈게갈게갈게...!
응... 앓, 아아... 보지 간다아아아아아앗...!!

(●사정)

(▲SE: 삼입 소리, 여기까지)

응앗, 앙, 응, 아아아아아앗... ♪
하아, 하아, 하아... 아, 아아... 응...

(▲SE: 자지를 뽑는 소리)

응아... 아아..... 하아, 하아.....

설마 이렇게까지 좋을 줄이야...
이거... 상상 이상일지도... ♪

(【음원】 말하면서 정면 10cm로 이동)

응, 아아... 너는 어때... 헉, 뭐야 그 얼굴.

그 만족스러운 표정... 너무 추악하거든?

(【음원】 말하면서 왼쪽 킷가로 이동)

.....뭐, 그래도 네 얼굴 표정은... 특별히 용서해줄게.

(●작은 목소리 시작)

자궁이 툭툭해질 정도로 쏟아낸 정액량... 상상 이상이었어.

역시, 성욕 하나는 넘쳐흐르네?

후후, 맘에 들었어.

앞으로는 내 오나팻으로 귀여워해줄게. 영광이지?

사정밖에 할 줄 모르는 주제에.....

내 보지에 써먹어줄 수 있는 걸, 감사히 생각하랴구?

후후... 후후후...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Track 3

(▲SE : 다가오는 발소리)

(【음원】 왼쪽 사선 앞 10cm)

.....어머, 깨어 있었네?

축하해.

드디어 완전체가 됐네?

다리도 제대로 자란 것 같고...

(【음원】 말하면서 왼쪽 킷가로 이동)

이제야 드디어, 화단에서 나올 수 있겠네.

움직일 수 있게 됐으니...

앞으로는 내 오나팻으로서 봉사할 것.

...알겠지?

.....후후, 기쁘지?

자, 더 기뻐해봐?

“완전체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로피엘 님.

색욕물로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

자, 말해보라구.

……응, 후후후 ♪

하아이 잘 말했네요 ♪

(【음원】 말하면서 정면 10cm로 이동)

그럼… 오늘은 정상위로 봉사받을까나?

……왜 그렇게 당황한 얼굴이야?

완전체가 된 기념이라구.

정상위는 지금까지 못 했잖아?

그러니까,이번엔 네가 움직여서 날 기분 좋게 해주는 거야.

알겠어?

자, 침대 쪽으로 가자.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20cm로 이동)

이리 와.

(▲SE : 걸어오는 소리)

……후훗, 놀랐어?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옆방에 침대 준비해 뒀거든 ♪

(▲SE : 침대 위에 누워지는 소리)

(【음원】 말하면서 정면 30cm로 이동)

응, 쇼웃…

……왜 멍하니 서 있어?

그런 데 서 있으면

에ｯチ 못 하잖아?

너도 이쪽으로 와야지.

(▲SE : 주인공이 침대에 오르는 소리)
(【음원】 말하면서 정상위 위치로 이동)

……후훗, 그래야지.

그럼 난 바로 누워 있을 테니까,
원할 때 넣…

아직 발기도 안 됐잖아?
…너, 할 마음은 있는 거야?

……굳이, 사과 안 해도 되거든?
그보다, 빨리 발기하라니까.

……하아.
너, 주인 손까지 번거롭게 만들 셈이야?
전에 내가 문질러준 건,
네게 손이 없었을 때 얘기고.

이젠 손도 생겼잖아?
스스로 발기시켜야지.

너, 모솔이니까…
자위는 자신 있겠네?

(▲SE : 팬티를 벗는 소리)

자, 응… 응응…
내 보지, 보여줄게.

이렇게 벌리면… 잘 보이지?
내 야한 구멍 깊은 데까지 보면서,
열심히 딸딸이 치는 거야.
너, 내 보지 완전 좋아하잖아?

이 정도면 발기할 수 있겠지?

자, 빨리 좇 문질러.

시코, 시코- 시코, 시코-♪
후훗, 좋아, 그 리듬이야♪

시코, 시코- 시코, 시코-♪
아햏♪ 좋아, 점점 단단해지고 있잖아?

후후후...♪

아직 넣지도 않았는데,
완전 뽀뽀하네...♪

살짝 문질렀을 뿐인데,
벌써 발기되다니...
역시, 모솔 좇은 쓰레기야...♪

(▲SE : 촉촉한 애액 소리)

응... 아아...
보다시피, 난 이미 준비됐으니까...

발기된 좇,
넣어도 돼... 응... 응응...

(▲SE : 페니스를 음부에 비비는 소리)

아... 아아... 응...
뜨거...♪

역시, 이 좇... 엄청 좋네...

아... 아아... 응... 응응...

.....시끄럽거든?
너, 왜 그렇게 우쭐거리려...?

오늘은 그냥, 좀 젖어 있었을 뿐이야.
완전체 섹욕물이랑 섹스하니까...
내가 기대하는 줄 알아?

…근데, 아까부터 뭐 하고 있는 거야?
슬슬 넣어도 될 타이밍이잖아?
응아… 아아… 응…

…아, 알겠다.
너, 입구가 어딘지 모르는 거지?
푸훗, 역시 모של.
하아… 어쩔 수 없네,
내가 알려줄게.

자, 조금만 더 아래쪽…
…응, 아니야. 거기 말고.

거기서 좀 더 위쪽…

(▲SE : 삼입음)
(【음원】 말하면서 정면 코앞으로 이동)

응아앗… 아아아… 응응…
아아… 응… 하아…
드디어 들어갔네… ♪

진짜… 모של 색욕물 상대해주는 거,
정말 손 많이 가네…

뭐,그래도 이젠 끝까지 들어갔으니까…

아아… 응…

이제부터, 네가 움직이는 거야.
할 수 있지?

(▲SE : 삼입 후 추삽 루프)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귓가로 이동)

응… 응아… 앙… 응… 아아… ♪

후훗. 죽어라 허리 헐떡거리네?
보지에 넣고, 얼마나 기뻐하면 그래…?
아앗… 응… 응아… 아아…

자, 힘내 힘내-♪
좋아… 그 리듬 그대로, 허리 흔들어…
아아… 응…

네 좇으로, 날 느끼게 만들어봐…!

……헤에?
모쓸 주제에, 그런 건 신경 쓰는구나…

……뭘, 움직임은 좀 어설프지만… 응아, 앓…
나쁘진 않아…? 아아, 앙… 응…

발기된 좇이… 느츄, 느츄… 문질러져서… 야, 응응…
제대로, 기분 좋은 데… 달고 있어… 하아… 하아… 응…
이건 이거대로… 아아, 응… 기분 좋아…

(★숨 섞인 신음소리, 약 10초)

……있지, 오히려 내가 물어볼게.

너는 어때? 내 보지… 기분 좋아?
아, 아아앗… 응… 아아, 응응…

……후후훗, 뭐, 당연하지? 앙, 아아…
안쪽까지 촉촉하게, 파아아악 조여오는 내 보지…
좋을 수밖에 없잖아.

게다가 이번엔, 네가 직접 움직이고 있고… 아, 응응…
스스로 움직이니까,
안쪽 감촉 더 잘 느껴지겠지?

응… 하아… 하아… 아, 응응…

자… 좀 더 허리를 내밀어서… 아, 응응…
내 보지, 실컷 즐겨도 돼…?

(★좀 전보다 더 기분 좋은 숨 섞인 신음소리, 약 20초)

(【음원】 말하면서 정면 코앞으로 이동)

후훗, 아까보다 열심히 하네…

그래도 역시, 모쓸 막 졸업한 애라서… 아앗, 응응…

허리 쓰는 건 아직 한참 멀었네.

있지… 좀 더 격하게 박을 수 없어?

(【음원】 말하면서 왼쪽 귓가로 이동)

응… 아앗… 앙, 응…

이런, 헐떡헐떡거리는… 짜질한 움직임 말고…

좀 더 크고… 아아, 응… 깊은 데를 찌를 수 있는 허리짓…

아아앗, 응… 해보라구…!

(▲SE : 점점 격렬해지는 삽입 소리 루프)

응… 응… 응응… 후훗♪

좋아, 지금 이 리듬이야… 응아, 앙…

안쪽 깊숙한 데, 팡팡 찢러올려서… 야, 응응…

기분 좋아…♪

(★기분 좋은 신음소리, 약 20초)

…좋, 좋아♪

응… 하아, 하아… 앙, 응응…

느껴지는 데, 발기한 좇이 문지르면서…

이런 거… 좋아해…♪

(★기분 좋은 신음소리, 약 10초)

앙앗, 아앗, 앙… 옛, 예?

거, 거짓말이지…?

벌써 한계야…?

이제 막 기분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양앗, 앓… 아아, 응…

좀 더, 버텨보라구…!

응끗… 아앗, 아앗, 아아앗… 자, 잠깐…

진짜로, 싸려는 거야!?

(★사정 직전의 신음소리, 약 10초)

(●사정)

응, 응응… 앙, 아아앗… 아, 응응…

하아, 하아, 하아… 아아, 응…

진짜, 왜 그렇게 금방 싸버리는 건데?

……내 보지가 기분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넌 내 오나뻬이니까, 참아야지?

그런데 명령도 무시하고 폭주하다니…

이 병신 좇아.

(▲SE : 자지를 뽑는 소리)

(【음원】 말하면서 정면 코앞으로 이동)

아아, 응…

하아아… 이렇게 질내사정 잔뜩 해놓고는…

첫 번째 사정,

좀 더 즐기고 싶었는데…

하아… 오늘은 네가 완전체가 됐으니까,

축하라도 해줄까 했는데… 계획 변경이야.

(▲SE : 주인공을 넘어뜨리는 소리)

(【음원】 정면 30cm로 이동)

이제부터는, 벌 받을 시간이야. 각오하라구?

(▲SE : 주인공 위에 올라타는 소리)

(【음원】 말하면서 기승위 위치로 이동)

……응, 도망치려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놀러앉아 있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

자아… 어떻게 해줄까?

(【음원】 말하면서 펠라 위치로 이동)

우선은, 이 작아진 좃을 다시 발기시켜야겠네.

응아아아… 렐루, 렐루우… 렐루, 렐츄우…

봐봐, 내가 청소 펠라 해주고 있잖아…

렐루, 렐로오… 빨리 발기시키라구?

(★끈적한 펠라, 약 20초)

아아, 응… 렐루, 렐로오…

후훗, 꽤 잘 살아나고 있네?

역시 완전체답게, 부활도 빠르잖아 ♪

(★끈적한 펠라, 약 20초)

렐루, 렐루우우… 응아아아,츄포… ♪

자— 발기 좃 완성— ♪

정말이지, 주인 손까지 빌리게 만들다니…

형편없는 색욕물이네.

(【음원】 말하면서 기승위 위치로 이동)

응, 쇼웃… 응, 후우…

이제 드디어, 다시 섹스할 수 있겠네 ♪

이번엔 내가 기승위로 박아줄게 ♪
너, 금방 쾌감에 못 이겨서 허리 움직이지않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움직여서
조절해줄게.
정말, 손 많이 가는 녀석이야.

……하아? 그걸 네가 말해?
손 많이 가는 애가 귀엽다는 건, 주인이 할 말이야.
건방지게 굴지 마라구……!

(▲SE : 삼입음)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귓가로 이동)

응긔, 응… 아, 아아…

너는 내 오나뎃이니까…
양, 응응…
얌전히 좇만 단단히 세워두면 되는 거야.
응, 아아…

(●속삭이듯 말함)

좋아…?

이번엔, 멋대로 싸버리면
용서 안 할 거니까…
제대로, 나를 만족시켜야 해…?
그럼, 간다…?

(▲SE : 추삽음 루프)

(★숨 섞인 신음소리, 약 20초)

응… 양, 아아앗… ♪
역시, 내가 직접 움직이는 쪽이… 양, 응…
느껴지는 데에 딱 맞아서, 기분 좋아…
앗, 아아앗… 양, 아아…

……응, 그런 건 당연하잖아?

네 형편없는 정상위 피스톤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응, 앓… 아아, 응…

나는 이대로, 앙, 응…
발기된 좁을 보지로 맛보는 거니까…
앙, 아아…

사정, 참아야 돼… ?

(★숨 섞인 신음소리, 약 20초)

……응? 헤에…?

내 기분 좋은 데가 어딘지 묻다니…
드디어, 오나팻으로서 자각이 생긴 모양이네…?

좋아. 알려줄게… 아아앗, 응응…
내가 기분 좋은 곳은… 아아… 앙…

(●작은 목소리 시작)

보지 입구에서 조금 들어간,
배꼽 쪽 방향이랑…
제일 깊은 곳… 아기가 생기는 방… 자궁이야… ♪
아앗, 아아… 응… 아아앗…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뭐, 알려줬다고 해서
모쓸인 네가 제대로 노릴 수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해—엇!?
응앗, 앓, 아앗… 응, 응응… ♪

(【음원】 말하면서 정면 코앞으로 이동)

헤, 헤에…? 앙, 앓, 아앗…
아까까진 보지 입구도 모르던 주제에…
하아, 하아… 앓, 아앗…

허리로 찢러대면서…
기분 좋은 데 잘 건드리네… ♪
응, 하아… 하아…

(【음원】 말하면서 왼쪽 컷가로 이동)

이, 이거… 나쁘지 않네…
양앗, 아아앗…
그대로 계속해… 날 느끼게 하라구…!

(★좀 전보다 기분 좋은 숨 섞인 신음소리, 약 20초)

…응긋, 응… 아아…

……이, 이제
느끼냐고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돼…

히얏, 아아… 응…
그런 거나 물어보니까
모สล이었던 거잖아…?
아아… 양, 응응…

……그러니까,
나 지금 충분히 기분 좋다니까…?
보면 모르겠어?

응… 앓, 앓, 아아…

발기한 좇이, 딱 좋은 데 건드려서…
히얏, 앓… 응응… 엄청, 기분 좋아…

앓, 앓… 아아아… ♪

……그,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지…
기분 좋다니까… 아앗, 아아…
그대로 계속하라구…!

(★기분 좋은 신음소리, 약 20초)

거, 거기… 좋아… 아앗, 아아…

젓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깊은 곳… 응, 아아… 기분 좋아… ♪

(【음원】 말하면서 키스 위치로 이동)

응, 앓, 앓… 아아… 응…

왠지, 기분 좋아지고 있어…

하아, 아아…

자, 특별히 베로츄 해줄 테니까…

혀, 내밀어…

(★신음 섞인 딥키스, 약 20초)

하아, 하아… 아아, 응…

……응후 ♪

그리고 보니, 키스는 처음이었지?

렐루, 츄웃, 츄우우… 쭉뽀, 렐루…

지금 기분 좋으니까… 아아…

한 번 정도 더 해줄 수는 있겠네?

응응, 하아… 앙, 아아…

에치하면서 하는 베로츄…

(★신음 섞인 딥키스, 약 10초)

…있지,

젓이 파르르 떨고 있잖아?

왜 그러는 걸까…?

응앗, 렐루, 렐츄우…

……응후 ♪

키스하면서 하는 섹스…

기분 좋지?

응츄, 츄우우… 렐루, 렐로…

봐, 이것도 인생 첫 키스잖아…?
그렇다면… 더 제대로 음미해봐야지…?

(★신음 섞인 딥키스, 약 10초)

그렇게, 내 키스가 마음에 들었어…?

발기한 좆, 완전 팡팡하잖아…♪

츄, 응츄… 렐루우우…
보지 안쪽에서 전해지는 감촉으로도…
아, 응응…
확실히 느껴진다구요…?

렐루, 렐루웃, 응츄우…

……응, 아아… 헤에?

뭐, 그렇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아앗, 응…

한계가 가까워졌단 건,
나도 슬슬 눈치채고 있었어…♪

렐루, 렐루웃, 응츄, 츄우…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봐…?
하아, 하아… 앓, 아앗, 응…

(▲SE : 점점 격렬해지는 삼입음, 루프)

나도, 슬슬 갈 것 같으니까… 아앗, 응응…
그 전까진, 너도 참고 있어야 해…?

(★신음 섞인 딥키스, 약 20초)

응, 응츄… 렐루, 렐루, 렐루웃… 응… 하아, 하아…

앗, 앓... 응응...

안, 안 돼... 나도 곧, 가버릴 것 같아...!

(★신음 섞인 딥키스, 약 10초)

가, 갈 것 같아... 간다... 응, 아아...

너도... 갈 것 같지?

렐루, 렐츄우...

그, 그럼...

지금부터 10까지 셀게... 아앗, 아앗...

0이 되면...

같이, 가자...?

응, 앓, 아앗...

(●다음 대사: 카운트하며 베로츄)

십, 구, 팔, 칠...

렐루, 응츄... 렐츄우...

(●계속 카운트하며 베로츄)

육, 오, 사, 삼, 이...

응츄, 츄우우... 일...

응츄우우, 츄루우...

렐루렐루우, 렐로오, 응츄우... 응응응응응우, 츄루웃...

쭈파아...!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귓가로 이동)

양, 앓앓... 아아아아.....

(●속삭이듯)

제로오..... 오오...!

(●사정)

(▲SE : 삽입 루프 여기까지)

응앗, 아아앗... 응응우우... 후아아아.....

응앗, 하아... 하아... 아, 응응...

아아... 기분 좋았어... ♪

이렇게 세계 간 건... 처음일지도...

(▲SE : 자지를 뽑는 소리)

(【음원】 말하면서 정면 10cm로 이동)

응우... 아아... 하아...

대단해...

후훗... 이렇게 잔뜩 싸버리다니...

얼마나 기분 좋았던 거야?

네 사정... 뷰를뷰를, 격렬하게 터져서...

자궁까지 느껴졌잖아... ♪

.....거기, 우쭐대지 마.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오줌 싸듯 썼는지 알기나 해?

절제도 못 하는 좆 주제에...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귓가로 이동)

뭐, 그래도 조금은 봐줄게.

...너, 하면 되잖아 ♪

이번엔 드물게,

제대로 봉사했으니까...

보상, 줄게... ♪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임무를 잘 끝낸 오나뎃한테는, 보상 정도는 줘야지?

정말...

나를 악마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응후,

궁금해졌어?

(▲SE : 오나홀을 꺼내는 소리)

응, 쇼웃...

(【음원】 말하면서 왼쪽 컷가로 이동)

너한테 줄 보상은...

이거야♪

(●다음 대사, 속삭이며)

.....역시 전 모쉴, 잘 알고 있네?

그래, 이 오나홀이 너한테 주는 보상이야♪

.....헤에, 눈치 챘어?

역시 전 모쉴.

넘쳐흐르는 요기에 반응해버렸구나...♪

이건 말이지,

서큐바이트의 '펠라린'이야.

쉽게 말해, 마법의 오나홀이야.

서큐버스가 사흘 밤낮 정성껏 요기를 가득 담아서...

느푸웃,

그냥 넣기만 해도...

기절할 때까지 연속 사정한대♪

뭐, 이번에 처음 써보는 거니까

진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너 좇 넣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

.....응—?

그 말도 맞네.

불량 서큐버스가 자꾸 팔아치우려고 해서 샀는데,
쓸 일이 없어서 애매했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좃으로 실험해보고 싶어졌달까… ♪

(●작은 목소리 시작)

…자, 봐봐?

입구가 말이지, 좃 원하듯이 움찔움찔거리고 있어 ♪

진짜, 서큐버스의 마법… 대단하지 않아?
이거 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어머?
주인님 말을 못 들을 셈이야?

내가 보상 준다고 했잖아.
기꺼이 내 실험에 협력해줘야지?

……후훗, 그래야지 ♪

자, 좃 넣는다?

(▲SE : 삽입음)

느푸웃… ♪ 느푸느푸웃… ♪

응후, 좃 들어가버렸네… ♪

어때?
서큐버스의 오나홀에,
좃이 먹혀버리는 감각은…?

……헤에, 그래?

이상하네.
아직 넣기만 했는데도,
몸이 달아오른다니… ♪

아हत ♪

벌써 효과 나오기 시작한 걸?

방금까지만 해도 쭈그러져 있던 좇이,
무크무크— 발기해버렸네… ♪

(●속삭임 시작)

응후후…

아—아, 벌써 뽀뽀해졌잖아 ♪

고작 오나홀 주제에,
뭐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네, 네, 알겠다고.

그래도, 발기한 건 사실이잖아?
싫었으면 서큐버스 요기 정도는
팅겨내 봐야지?

…뭐, 의지 약한 너한테는 절대 무리겠지만… ♪
그건 그렇고… 말만 하고 있으면 실험이 안 되니까…
오나홀, 움직일게?

(▲SE : 삽입 루프)

느푸, 느푸, 느푸웃… ♪

(●속삭임 여기서부터)

……아हत ♪

있지, 좀 너무 느끼는 거 아니야?
아직 아주 살살만 움직였을 뿐인데도…
앙, 앙, 아앙~ 하고 혈떡이고…

너, 알고 있지? 이거 오나홀이야?
가짜 보지에 그렇게 느껴버리고…
부끄럽지도 않아? 응후후… ♪

(●속삭임 여기까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겠네?
서큐버스 요기로 가득한 오나홀을 써버리면…
전 모쉴 네가 버틸 리가 없잖아… ♪
후훗…
그렇게 기분 좋다면, 오나홀 감촉…

더 제대로 맛봐도 괜찮아… ♪
자, 자… 느—푸, 느—푸… ♪

(★숨 섞인 숨소리, 약 10초)

……하아? 뭐야, 벌써 써버릴 것 같아?

아무리 마법의 오나홀이라고 해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좀 정도는 보여줘야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좋아.
사정, 허락해줄게… ♪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말했잖아?
이건 무한 사정 가능한 오나홀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

(●다음 대사, 속삭이며)

자… 싸라구? 응, 응응…
싸—, 싸— ♪

(●사정)

(▲SE : 삽입 루프 여기까지)

응, 응응우… 뷰, 뷰, 뷰우우우… ♪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아हत… ♪ 벌써 쓸데없는 정액, 써버렸네… ♪

아—아… 이렇게나 잔뜩 뿌려버리고… ♪
게다가… 나랑 애치할 때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 했잖아?
그렇게 이 오나홀이 좋았던 거야?

(【음원】 말하면서 정면 코앞으로 이동)

……흠—? 주인님 앞에서 잘도 그런 소리 하네?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귓가로 이동)

보상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생각 바꿨어.

(▲SE : 삼입 루프 재개)

이제부터는, 벌이야.
……하아? 그것도 몰라?
이런 오나홀이 제일 좋다니…

네가 그런 멍청한 소릴 하니까 그렇지?
확실히 이건, 서큐버스 보지를 본떠 만든 거고,
기분 좋은 건 알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에로피엘 님 쪽이 더 좋다고 말해야지?

(●여기부터 속삭임)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어.

오늘은 말이야, 기절할 때까지 괴롭혀주기로 했거든.
포기하고 내 장난감이 되라구?

자자— 느푸느푸, 느푸느푸 ♪
응, 응응… 후훗 ♪
아라라, 왜 그래?
쫓이 파르르, 파르르— 떨고 있잖아?
방금 썼는데 또 싸고 싶어?
……하아아— 정말이지, 인내심도 없는 놈이야 ♪

그래도 뭐... 좋아. 싸고 싶으면, 그냥 싸버려.
서큐버스 오나홀에...
뷰—뷰— 하고 허무하게 뿌려도 돼?

응, 응, 응응... ♪

(●사정)

(▲SE : 삽입 루프 여기까지)

아앗, 응...
뷰루루, 뷰우우우... ♪

자아, 또 나왔네— ♪

(●속삭이며 여기부터)

응, 아아... 진짜...
너무 많이 싸는 거 아니야...?

오나홀에서 정액이 넘쳐흐를 것 같아?

그렇게 기분 좋았어...?

.....응후, 알고 있어 ♪

그럼 이 쾌감,
더 맛보게 해줄게... ♪

(▲SE : 삽입 루프 재개)

.....후훗.
울어도 소용없어— 멈출 리 없잖아?

이건 벌이니까...
네가 기절할 때까지,
절대 안 멈춰... 후후후 ♪

(●속삭임, 여기까지)

하아, 하아... 아아...

대단하다... 혹시, 눈치챘어?

너, 아까부터 계속 발기한 채야?
평소라면 두 번만 싸도 금방 쪼그라들고 못 써먹을 텐데...
싸도 싸도,
발기가 멈추질 않아... ♪

서큐버이트의 펠라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이네... ♪

참고로 말이지...
구멍 안은 서큐버스의 애액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넣기만 하면 절대 안 쪼그라들고, 불알도 강제로 정액 만들어내서...

다 썼다는 건, 있을 수가 없대...?
봐봐, 너도 느껴지고 있잖아...?
두근, 두근— 불알이 필사적으로 정액 만드는 거...

.....그래.
지금 너는, 오나홀에 헛사정만 하게 하려고...

역지로 정액 만들게 당하고 있는 거야... ♪

후후, 참 불쌍하다니까... ♪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이젠 굳이 허락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싸고 싶으면, 그냥 싸라?
그럼 또, 서큐버스 오나홀로 느푸느푸 해줄게... ♪

응, 응... 싸... ♪ 싸, 싸— ♪

(●사정)

(▲SE : 삽입 루프 여기까지)

응, 응응... 뷰, 뷰루루웃, 뷰우우... ♪

응후후 ♪
웬지, 점점 나오는 양이 많아지고 있지 않아?
이러다 진짜, 기분 좋아서 이상해질지도 몰라...?

(●속삭임 여기부터)

…그래도, 아직 멈춰주지 않을 거지만 ♪

(▲SE : 삽입 루프 재개)

응, 응… 응후후 ♪ 표정 엄청나게 돼버렸네?
한심하게 혈떡이면서, 눈까지 풀려서…
이런 오나홀 따위로 너무 느끼는 거 아니야…?

(●속삭임 여기까지)

……잠깐, 대답 정도는 해봐야지?
진짜, 쾌감 때문에 망가져버린 거야?
뭐, 그렇다 쳐도 별로 상관은 없지만.

……있지, 또 정액 나오려는 거잖아?
말 안 해도, 네 타이밍은 다 알고 있거든?

자, 새로 정자 탱크에 만들어진 정액…
뷰, 뷰, 뷰— 하고, 한껏 뽐어내버려 ♪

하아, 하아… 자자… 싸— ♪ 다 싸버려… ♪

(●다음 대사, 속삭이며)

있지… 너 이 오나홀 맘에 들었지?

이걸 임신시킬 셈으로, 정액 썼다 생각해보라구?
뭐, 어차피 전부 헛짓이지만… ♪

응, 응응… 느푸, 느푸, 느푸우우… ♪
느푸, 느푸, 느푸웃… ♪

(●사정)

(▲SE : 삽입 루프 여기까지)

응긱, 응응… 뷰, 뷰… 뷰우우우우우우우우 ♪

응, 아아… ♪ 아아… 대단해… ♪

자, 봐봐. 너 정액, 오나홀에서 넘쳐 흐르고 있잖아?
이건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은 양일지도?
평소부터 이 정도의 지속력이 있었으면,
더 만족했을 텐데...

앞으로는 오나홀 없이도 버틸 수 있게
훈련 좀 하라구?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음원】 말하면서 정면 10cm로 이동)

있지, 내 말 좀 들어봐——
...잠깐, 자고 있는 거야?
진짜로 기절해버리다니...
정말이지, 하아...

뭐... 그렇게 잔뜩 사정했으면, 그럴 만도 하지.

(【음원】 말하면서 왼쪽 귓가로 이동)

이번엔 아무래도...
좀 과했나보네...

...그래도, 실험은 정말 즐거웠어.
응.....츄웃 ♪

이건 내가 주는,
조금은 특별한 감사의 키스... ♪

(●다음 대사, 속삭이며)

앞으로도 오나핼트로 써줄 테니까, 내 보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구?

...엣, 자, 자고 있었던 거 아냐?
.....하아? 너,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또 한 번 키스해줘야 되는 건데?

미리 말해두지만, 넌 성처리용 펫이야.

에치 흐름상 키스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

당연히, 연인이 될 수는 없지.
조금 칭찬받고, 허로 키스해줬다고 해서…
분수는 알아야지.

(●여기부터 속삭이며)

…알았어?
너 같은 놈은, 대체 얼마든지 있어.

그걸 똑바로 이해하라구.

착하게 잘 있으면,
그만큼 다시 보지로 귀여워해줄게.

착각은 금물.
후후, 우후후…♪

(●속삭임 여기까지)

■ Track 4

(▲SE : 문 여닫는 소리)

(▲SE : 다가오는 발소리)

(【음원】 정면 10cm)

…안녕—♪

오늘도 힘내서,
내 생뿔도로 충실히 일해♪

……뭐야, 아직도
전혀 발기 안 돼 있잖아?

진짜…
덜도로서의 자각은 있는 거야?

내가 오면,
바로 좇 세우라구... 진짜.

.....너, 오나뻬 주제에 말대답할 셈?

확실히 요즘 매일 에치했긴 했지만...

애초에 그게 네 역할 아니었어?

그런데 주인님 앞에서
쭈글쭈글한 채로 있다니, 뭐 하는 거야?

...하아, 정말 못 써먹겠네.

하아...
어쩔 수 없으니까,
내 가슴 보여줄게.

너 좇은 약하니까?
야한 거 보면,
바로 들썩거리잖아?

.....하아.
너, 그건 좀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음원】 말하면서 정면 20cm로 이동)

그걸로 발기할 수 있다면,
딱히 상관은 없지만...

(▲SE : 옷을 벗는 소리)

응, 쇼웃...

자, 이걸로 뻘어?

바라는 대로,
알몸 다 보여줬다?

이걸로도 발기 안 하면,
진짜 용서 안 해.

……뭐야, 그 걱정은 필요 없었나 보네?

역시 너무 쉬워,
너 좇은 말이지.

살짝 벗어만 보여줘도,
바로 발기해버리는 거 보면… ♪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앞 10cm로 이동)

자, 바로 예치할 거니까,
침대로 가자.

……하아?

혹시,
싫다고는 안 하겠지?

이 몸이,
정성 들여 키워줬던 은혜… 잊은 건 아니지?

(▲SE : 발로 차는 소리)

……이 녀석이…
색욕물 주제에, 주인님한테 말대답?

(【음원】 말하면서 정면 10cm로 이동)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못 컸다구?

그런데 은혜도 모른 채,
하는 말마다 배은망덕이야… 진짜.

……아아~ 그렇구나?

후후, 설마 너…

완전체 된 기념으로,
괴롭힘받고 싶은 거지?

(【음원】 정면 10cm로 이동)
어쩐지 요즘 들어, 자꾸 말대답하더라니…
다시 한번, 입장을 똑바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는걸?
오늘은 벌받는 날로 정해줄게——

(▲SE : 내리누르는 소리)
(【음원】 이라마치오 위치로 이동)

응… ! ?
잠, 잠깐… 이게 무슨 짓이야?
날 밀어붙이다니…

……하아?
쫓그라든 모솔 주제에, 안 될 소리 좀 하지 마라구?
날 굴복시킨다니, 네 주제에 절대——

(●이라마치오 시작. 여기부터는 자지를 문 채로 연기 부탁드립니다)
(▲SE : 삽입음)

응고웃… ! ? 응그웃, 웃, 응응… !
이, 이렇게 갑자기 좇을 쑤셔넣다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이 녀석이…
응… 응그웃, 응우우웃…
이런 짓 해놓고, 가만 안 둘 거니까…
너 같은 건 폐기 처분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이라마치오 중인 음성, 약 10초)
오고웃… ? 응웃, 오브웃, 응응…
훗, 흥… 뭐야 이 시시한 허리 놀림은…
이딴 걸로 날 굴복시키겠다고…?
천 년은 이르다구…!

(★이라마치오 중인 음성, 약 20초)
응, 응응… !
잠, 잠깐… 이제 그만해… 응, 응응…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니... 오, 응응...
모쉴 주제에 너답게 굴어야——

(★이라마치오 중이며 점점 괴로운 듯한 음성, 약 20초)

크, 괴로... 응, 웃, 오오웃...
숨... 못 쉬겠어... 오웃, 응응...
이, 이제 진짜... 그만둬...!

(★고통스러운 이라마치오, 약 20초)

우엑... 응웃, 응부우웃...!
부, 부탁이야... 진짜... 그만, 해... 응, 응붓...
쫓이 목을 막아서... 오, 오오웃...
숨막혀서... 죽을 것 같단 말야...!

(★고통스러운 이라마치오, 약 20초)

으윽, 흑... 이, 이젠... 제발 그만...
응, 응그웃, 응응... 뭐, 뭐야?
.....에?
왜 내가... 색욕물 따위한테 사과해야 하는 건데...
.....자, 잠깐만...
거짓말이지...? 이대로, 사정까지 해버리면...
진짜, 미쳐버릴지도 몰라——

(▲SE : 이라마치오 소리, 사정을 향해 점점 격해짐)

(★격렬한 이라마치오, 약 20초)

(●사정)

응붓... 응, 응, 응우우우우우...!
꿀꺽... 꿀꺽... 응, 응응...

(●이라마치오 여기까지)

부왁... 휴——, 휴——, 휴——...
하아... 하아... 응, 아아...
죽는 줄 알았어...
.....시끄럽다니까.
천사라도... 괴로운 건 괴로운 거라고...
...그래서? 반격은 그걸로 끝이야?
네 좃, 원래 한심하잖아?

어차피 또 금방 쪼그라들겠지——

…옛… 왜… 아직도 뺏뺏한 거야…?

항상 같으면, 이미 흐물흐물해졌을 텐데…

(【음원】 정면 10cm)

……아, 설마… 금단의 과즙 썼어…?

꿀꺽… 응, 아아… 대단해…♪

처음 봐, 이렇게 단단한 좆이라니…♪

너, 하면 되잖아?

그 좆으로… 날 범할 셈이지?

자, 해도 돼…?

(▲SE : 내리누르는 소리)

(【음원】 말하면서 후배위 위치로 이동)

까얏…!? 뭐 하는 거야, 갑자기.

(▲SE : 좆을 비비는 소리)

응… 혹시, 뒤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굳이 이렇게 눌러서 할 필요는…

……옛, 옛? 잠깐만…

거긴… 섹스하는 구멍이 아니라고…?

안, 안 돼… 엉덩이는 아직 한 번도——

(●애널 섹스 시작)

(▲SE : 삽입음)

뭐…! 응웃…!? 웃, 오오웃…!

큭, 아파… 하아, 하아…

천사의 엉덩이를 범하다니… 오웃, 응…

제정신이야…!?

이, 이거… 당장 빼라니까… 응, 오오웃…

엉덩이는 더럽고… 아프기만 하다고… 오웃, 응…

오웃… 응웃, 오웃…

……하아?

뭐, 엉덩이가 조이긴 더 세니까... 응, 아아...
넌 좋겠지만...
오옷, 응... 응오옷...
...나, 나는 절대 안 느끼거든... 이런 걸로...
그냥 좀 간질간질할 뿐이야...
보지 쪽이 백 배는 더 좋아...!

(▲SE : 삽입음 · 왕복 루프)

응옷...!? 옷, 오오옷, 응, 응응...!
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는 거야...? 오, 오옷...
그만하라니까...
주인의 말도 못 알아듣겠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약 20초)

.....하, 하아? 제정신이야?
이딴 걸로 내가 굴복할 줄 알아?
오옷, 응... 응아... 하아, 하아...
너 같은 쓰레기 좃에게... 옷, 응응...
내가 질 리가... 옷, 옷, 응오옷... ♪
옷, 옷... 응, 오호옷...

.....시, 시끄러... 응, 응응...
방금 건 그냥...
좀 이상한 데에 닿아서... 응, 응우...
이상한 소리가 난 것뿐이니까...!
하아, 하아... 옷, 옷, 응오옷...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안 기분 좋은 거 아냐...!
하아, 하아... 오옷, 응, 응우...

후훗... 안 됐네? 그렇게 열심히 엉덩이를 범하는 것 같지만...
응, 응... 오옷... 너 진 거야?
어차피 너 쪽이 먼저 싸고, 금방 쪼그라들겠지?
너 그거잖아... 약한 좃...?
잼민이 ♪ 잼민이 ♪ 응, 오옷... 약좃이잖아... ♪

(▲SE : 좀 더 격한 삽입음 루프)

응웃…!? 웃, 오오웃, 응응…!

(●여기부터, 점점 느끼기 시작함)

……혹, 혹사… 화난 거야? 웃, 응응…
허리 박는 게 갑자기 더 심해져도… 응웃, 오웃…
이, 이런 걸론, 전혀… 오웃, 오훗… 응호웃 ♪
안 느껴지거든… 응웃, 호웃… ♪

(★가볍게 오호 소리 섞인 신음, 약 20초)

(【음원】 정면 10cm)

……그러니까… 안 느낀다니까…?
웃, 웃… 오훗, 오오웃… 응, 응응…
이, 이 목소리는… 네 허리가 너무 격해서…
저절로… 새어나오는 것뿐이야…!

(▲SE : 쿵쿵 찢러올리는 삼입음 루프)

응, 오훗… 웃, 오호오오웃… ♪
그, 그치만 세계 한다고 다 되는 건…
응훗… 오훗, 호오오오웃 ♪
이, 이게 뭐야… 웃, 오웃… 응훗, 오웃…
엉덩이, 쿵쿵 찢려서… 웃, 오웃…
소름 돋을 것 같아아아앗… ♪
웃, 오훗… 응웃, 웃, 응응… ♪
엉덩이, 이상한 느낌 드니까… 그, 그만해줘어…!

(★오호 소리 섞인 신음, 약 20초)

……응, 하아, 하아… 인, 인정할게… 인정한다구…!
네가 내 엉덩이를 범해서… 응웃, 오웃…
느껴버리고 있어에에에… 응웃, 오오웃…
이대로는, 이상해질 것 같단 말이야아아앗…
응, 오웃… 이, 이제 그만해줘…!

(★오호 소리 섞인 신음, 약 20초)

하아, 하아... 응, 오호오오웃...♪
알, 알겠어, 알겠으니까아아...!
웃, 오오오웃, 응... 응오웃...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사과할게 ㄸ... 응웃, 오오웃!
이, 이거, 좀 멈춰... 웃, 응, 응오오웃...
아, 아까부터 너무 느껴서... 히앗, 앓, 응응...
정신 나갈 것 같다니까아아앗...!

(★오호 소리 섞인 신음, 약 10초)

그, 그거 말하면... 용서해주는 거야...?
응... 응훗, 웃, 오오웃...
.....하, 하이이잇... 알, 알겠어요오...!
말, 말할게요오... 제발 용서해줘요오...
웃, 웃... 응웃, 오오웃...
저는요오, 엉덩이 범해져서... 응, 응호오웃... 오웃...
엉덩이 오르가즘 해버리는, 미친 변태 천사입니닷...!
응훗, 웃, 오오웃...♪
이 한심하고 처참한 천사를... 제, 제발 용서해줘요오...
오` 웃, 오` 웃... 이제부터, 당신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요오...♪

(▲SE : 사정 직전 삽입음 루프)

응오오오웃...!? 오훗, 웃, 응오오웃...♪
자, 잠깐...? 왜, 왜에에...!?
말한 대로 했는데, 아직도 쿵쿵 박는 거야아...!?
응, 응오웃, 오오웃...♪
.....엣, 거, 거짓말이지? 그, 그런...
지금 싸버리면... 응훗, 오오웃...
진짜, 이상해져버려... 웃, 오훗, 오웃...♪
자, 잠깐만... 응` 웃, 오` 웃... 싸면, 안, 안 돼...
초특급 오르가즘 돼서... 오` 훗, 호오` 웃...♪
멍청이가 되어버린단 말이야아아앗...♪
웃, 웃... 응` 훗, 오` 웃, 오` 오웃...♪
안, 안 돼... 가, 간다... 간다간다앗... 가버려어어...♪
엉덩이 오르가즘 돼서... 머리 날아가버려어어어어...♪

(★사정 직전 오호 섞인 신음, 약 20초)

어제 계속 나를 범해놓고… 그냥 굶아떨어졌잖아… 기억 안 나?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내 안에 싸고… 앙, 응응… 대단한 밤이었지… ♪

……응후후 ♪ 점점 기억나고 있는 것 같네…?
당신의 발기한 좇, 전혀 가라앉지 않아서…
몇 번을 싸여도, 계속 느껴져서… 기분 좋았어… ♪

아, 아아… 응…
있지… 오늘도, 나랑… 섹스할 수 있지?
응, 아아… 어제 일이 떠오르니까 나…
참을 수 없어졌어… ♪

있지, 이제 시작할까…? ♪

(●속삭임 여기까지)

(▲SE : 천 조각 스치는 소리)

(【음원】 말하면서 펠라 위치로 이동)

응, 하아, 하아…
자… 펠라로 다시 힘내게 해줄 테니까…
다시, 굶직한 좇으로… 응, 응응…
내 보지를… 마음껏 박아줘… ♪

(●펠라 시작. 여기부터는 자지를 문 채로 연기 부탁드립니다)

응아아아… 레루, 레루우… 레루츄우… ♪
응… 벌써, 무쿱무쿱 커지고 있어… ♪
역시 완전체가 되어서 그런지, 회복도 빠르네…
레루… 레루, 레루츄…
응응… 그래도, 더 커질 수 있잖아…?
자, 내 긴 혀로 밑바닥부터 레루레루 활아줄 테니까…
좇, 단단하게 세우는 거야… ♪

(★아래서부터 활아올리는 펠라, 약 10초)

응아, 레루, 레루츄우…

……응… 그게 그렇게 신경 쓰여…?
이 정도는… 당연하잖아…?
…잇었어?
당신의 기분 좋은 좇을 맛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

(★아래서부터 활아올리는 펠라, 약 20초)

레루, 응츄우…
아아, 역시 이 좇… 정말 맛있어… ♪
응, 하아, 하아… 활기만 해선 부족하니까…
좇… 덤석, 물어버릴게… ♪

응아아움… 응, 응, 응쥬루, 레루우…

(★깊숙이 삼키는 펠라, 약 20초)

응… 쉼포오 ♪
(●자지를 무는 연기, 여기까지)

응, 하아, 하아… 아아, 굉장해… ♪
좇, 정말 멋있어졌어… ♪
또 이 발기한 좇으로, 에ッ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응, 아아… 보지가… 두근두근 거려버려… ♪

……응? 아아, 그 정도는 전혀 괜찮아…

(▲SE : 털썩 누워버리는 소리)
(【음원】 침대에 누워서, M자 다리 벌림 애원 자세로 이동)

좇 넣어준다면, 애원 정도야…
얼마든지 할게요오… ♪
응, 하아… 있지, 부탁이야… ♪
성욕에 미쳐버린 바보 천사의 보지에…
무적의 좇, 내려주어어어… ♪

(▲SE : 축축한 소리)

아앗, 아아… 응… 뵤뵤… ♪

힘껏 다리 벌리고… 보지, 짹 벌렸더니…
질질 흘러내리는 거, 응, 아아… 잘 보이잖아?
여기, 좇의 감촉 떠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
발기한 좇… 응, 응응, 넣어줘… ♪

(▲SE : 삽입음)

(【음원】 정면 코 앞 위치로 이동)

응앗… 응, 앓, 아아앗… ♪
발기한 좇, 츄룩츄룩하고 들어와서… 앙, 응…
기분 좋아앗… ♪
응앗, 앓, 아아앗…
……응, 응… 물론, 괜찮아 ♪
마음껏 허리 흔들어도 돼… 하아, 하아, 응…
꽉 끼는 천사 보지, 마음껏 느껴줘어… ♪

(▲SE : 격하게 찢러올리는 삽입음 루프)

앗, 앓… 응앗, 아아앗… ♪
좇이, 쿵쿵 찢러올려서… 앙, 응응…
보지가 축축히 파이파이하게 돼서… 너무 좋아… ♪
응, 앙, 앓, 아아앗…
이, 이렇게 갑자기 격하게 허리 흔들다니… 응, 아아…
혹시… 흥분한 거야…? 앓, 응응…
……아아, 아, 응… 후훗… ♪
내 발정 보지를 보여준 게, 꽤 효과 있었나 보네… ♪
나도, 팡팡팡 세계 당하는 거 좋아하니까아…
더, 더어어… 보지 더 찢러줘어… ♪

(★기분 좋아 보이는 신음소리 약 20초)

응… 앙, 앓, 앓, 아아아앗… ♪
……응, 응… 진짜 너무 좋아아 ♪
응앗, 앓, 아아앗…

(【음원】 말하면서, 왼쪽 귀 옆으로 이동)

있지, 부탁이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
날 꼭 안아줘어… ♪

(●작은 목소리 시작)

응, 앓... 하아, 하아... 앓, 아아... ♪
꽉, 꽉... 꼭 안아줘어어어어... ♪
아아, 따뜻해... 응, 앓, 아아... ♪
이대로 온몸으로... 당신을 느끼게 해줘어... ♪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기분 좋아 보이는 신음소리 약 20초)

하아, 하아... 앓, 아아... ♪
...있지, 당신도 기분 좋은 거야...?
왜인지, 나만 너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하아, 하아... 앙, 응응...
원하는 거 있다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앓, 아아...
말해봐...?
응앓, 앓... 앓, 아아... 응후후 ♪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지... ♪
...당신 귀... 활아줄게...?
응아아아... ♪

(★신음 섞인 귀 활기 약 20초)

하아, 하아... 응앓, 아아... ♪

(●작은 목소리 시작)

쫓이, 보지 속에서 비틀비틀 떨리고... 응, 응응 ♪
당신도 느끼고 있는 게 전해져서... 나, 너무 기뻐... ♪

(【음원】 정면 10cm)

하아, 하아... 아앗, 응, 레루, 레루츄우...
내 귀 활기만으로도 괜찮다면... 레루, 레로오...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응아, 레루우...
더, 허리 팡팡 해버려야 해... ♪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신음 섞인 귀 핥기 약 20초)

응, 앓, 아아앗... ♪ 하아, 하아...
.....응후, 소리까지 내버리고... 레루, 레루우...
그렇게 기분 좋은 건가요...?
.....레루, 레루우... 레루츄우... 응, 아아... ♪
당신, 정말 귀 핥기는... 좋아하네... ♪
뭐, 나도 싫진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
레루, 레루우... 레루츄우... 응, 츄우...

(【음원】 말하면서 정면 코 앞 위치로 이동)

응, 하아, 하아...
그래도... 이쪽만 핥으면, 질려버릴 테니까...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귀 옆으로 이동)

반대쪽도... 응, 아아... 핥아줄게요...?
응아아아음... ♪

(★신음 섞인 귀 핥기 약 20초)

어, 어때...? 이쪽 귀도, 느껴져...?
레루, 응아, 레루츄우... 레루우...
.....응, 아아... 그, 그래... ♪ ...앗, 아아앗...
원하는 만큼... 맛봐도 괜찮아... ♪

(★신음 섞인 귀 핥기 약 20초)

왜, 왜 그래...?
왠지... 응, 아아...
갑자기, 좇이 격렬해진 것 같은데...
응, 응우웃... 레루, 레루우, 레루츄우...
.....응, 아아... 그, 그래 ♪
정액 올라오고, 이제 곧 쌀 것 같다면...
응, 응웃, 오웃...
잔뜩 싸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응, 아아... 원하는 타이밍에... 싸도 돼... ♪

(★신음 섞인 귀 핥기 약 20초)

(▲SE : 사정 직전으로 빠르게 왕복하는 삽입음)

응오옷, 오옷... 레루, 레루츄우...
이, 이거... 기분 좋아앗... ♪
레루, 레루, 레루츄우...
보지가, 째짝째 째는 거... 너무 좋아아 ♪
응, 하아, 하아, 하아... 레루우, 레루츄우...

(【음원】 말하면서 키스 위치로 이동)

응, 앓, 아아앗... 있지, 있지, 키스... 할게...?
그, 그게...
쌀 땀... 키스하면서 싸고 싶거든...
자, 입 벌려봐... ♪
응... 응쥬루, 레루, 응레루우... 레루츄우...
앗, 앓... 응앗, 아아앗... 이거, 좋아... ♪
키스하면서... 레루, 응쥬루, 레루우...
보지로 박히는 거... 최고야... 레루, 레루우... ♪

(★신음 섞인 디프 키스 약 20초)

응, 응... 레루, 응응... ♪
죏이, 팡팡해져서... 레루, 응레루우... ♪
이, 이제 한계지...?
레루, 레루우... 레루츄우... 싸, 싸쥬... 싸쥬어... ♪
레루, 레루우... 레루츄우, 응레루우... 하아, 하아...
자, 싸버려어... 응, 앓, 아아앗...
천사의 오나홀 보지 안에... 레루, 레루우...
뷔욱뷔욱, 뷬우우우우우웅...
마음껏 싸쥬어... 앓, 앓, 응응...
당신의 진한 정액으로...
내 보지를 가득 채워도 되니까아 ♪
응쥬루, 레루, 레루... 앓, 아아앗...
가, 간다... 가버려... 레루, 응레루우...
간다간다간다... 앓, 앓, 앓, 아아아아아아앗... ♪

(●사정)

(▲SE : 삽입음 여기까지)

응앗... 응, 응우우... 간다아아아아아아앗... ♪
뷰욱, 뷰루룩... 뷰우우우우우우우... ♪

(【음원】 말하면서 오른쪽 귀 옆으로 이동)

하아... 하아... 하아... 응, 아아...

(●작은 목소리 시작)

기, 기분 좋았어어... ♪ 하아, 하아...
진한 정액, 보지에 잔뜩 부어져서... 앙, 응응...
맘껏 가버렸어... 아아, 앓, 응... ♪
하아, 하아... 이번에도, 최고였어... ♪
앙, 응응... 역시, 당신 좇은 못 참겠어... ♪
하아, 하아... 앓, 아아앗, 응...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SE : 좇 뺨는 소리)

(【음원】 말하면서 정면 10cm로 이동)

응앗... 앓, 아아... 아깝잖아...
좇을 빼버리면... 응, 아아...
보지에서, 정액 흘러넘쳐버리잖아...?
.....흠~? 꽤나, 늠름해졌네... ♪
거기까지 말할 거면...

(【음원】 말하면서 정면 코 앞 위치로 이동)

조금 흘러나온 정도는 신경도 안 쓰일 만큼...
쭈우우우우욱... 오나뻬으로 써줄게... ♪

응... 쉼, 쉼우... 후후, 사랑해... ♪

(●END)